

“시는 아름다움에 대한 울렁임...아이들 삶의 태도와 유사”

2024 꿈을 쏘다 <2>김상조 시인

“시와 아이들과의 사이엔 근원적인 부분에 있어 공유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처음 시를 썼던 가장 큰 이유는 세상의 아름다움에 대한 알 수 없는 울렁임 때문이었죠. 시를 통해 표현하고 나면 그 울렁임이 해소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이들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도 이와 유사하다고 생각해요. 얽매임 없이 마음의 끌림에 따라 세상의 것들에 경탄하고 나아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놀이로 표현하잖아요.”

김상조 시인(30)을 만나면서 찬사 시를 쓸 수밖에 없는 청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순수한 내면과 시를 향한 진정성이 어린아이의 그것과 많이 닮아 있었다.

대학(전남대)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한 이색적인 경력도 눈에 띄었다. 유아교육하면 대부분 여학생들이 전공하는 분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금남의 벽’을 깨고 유아교육과에 입학해 공부를 마쳤다는 자체가 대단한 일임에 틀림없다.

김상조 시인에게서는 그렇게 유치원 교사라는 목표와 시를 창작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와 감성을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꿈이 있다.

그가 최근 네 번째 시집 ‘시 바람 느끼기’(천년의 시작)를 펴냈다.

시는 모두 22편이다. 2편의 장시와 1편의 율니버스 형식의 시까지 모두 22편으로 구성돼 있다.

“등단은 지난 2019년 ‘포엠포엠’으로 했습니다.

유아교육 전공...임용 준비하며 창작 네번째 시집 ‘시 바람 느끼기’ 발간 ‘공기’ 소재...쾌활함 느끼길 ‘바람’

졸업하고 나서 임용고시를 준비해야 하는데 시 쓰는 것이 너무 즐거웠어요. ‘이때가 아니면 시적으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창작에 매달렸죠. 남들은 취업 준비에 여념이 없는데 저는 불안감을 안고 기회비용을 감수하면서 시를 썼어요.”

오늘의 시대에도 이렇게 자신의 길을 흔들림 없이 가는 청춘들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한 두 번 도전하다 성과가 없으면 발 빠르게 진로를 바꾸거나, 돈이 되지 않는 문학 쪽으로는 아예 쳐다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는 “20대 후반에 등단이 되고 나니가 너무 마음이 부풀어 올랐다. 2-3년 더 시에 정진해보자는 생각에 창작에 몰두했다”며 “그러나 문득문득 현실적인 문제에 사로잡히다 보니가 불안할 때가 많았다. 어느 때 ‘이것을 놔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있지만 이제는 시와 함께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말했다.

이번 시집의 제목을 왜 ‘시 바람 느끼기’라고 했을까. 그는 독자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공기’를 잘



김상조 시인

호흡하고 ‘바람’을 잘 맞이하길 수 있도록 내용을 전개했다. 공기가 주는 쾌활함과 생산성을 느꼈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그가 고향 해남을 한두 달에 한번 씩 내려갔다 오는 이유도 어쩌면 정정한 고향의 바람을 느끼기 위해서인지 모른다. 시인은 해남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니다가 대학을 오면서 광주로 올라왔다. 어머니



중에서) 표제지 ‘시 바람 느끼기’에는 시인이 말한,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한 나름의 방식과 표현들이 담겨 있다. ‘지울 수 없는 평화의 박동’ 같은 이미지나 의미로 다가오는 것은 그런 연유다. 그러나 찬찬히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끈고와 집은 자의식 같은

가 싸 주시는 쌀을 비롯해 이런 저런 시골 반찬은 ‘근기’를 키워 주는 근원적인 ‘바람’과도 같은 대상이었을 것이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현실의 막막함이 밀려올 때는 어떤 방법으로 이겨내는지 궁금했다. 문학이라는 집을 지고 청춘의 강을 건너가기가 여간해서는 쉽지 않을 터였다. 시인은 “천천히 산책하면서 휴대폰이나 태블릿으로 시를 읽거나 책을 읽는다”며 “시를 읽으면서 보게 되는 주변의 풍경은 전혀 다른 장소와 공간으로 다가와 가슴을 뛰게 한다”고 했다.

“입구에서 왼쪽으로 계속 들어가 본다. 그러자 곧 사람들이 소파에 앉아 부드러운 눈길로 시집을 읽어나가는 모습이 보인다. 다들 무슨 시를 읽고 있는 걸까? 가까이 있는 한 진열대를 훑어보니 ‘수모하고 길게 발음하면’ ‘어떤 웃음은’ ‘꽃잎 동영상’ 등 감성을 자극하는 시집의 제목이 보인다. 그중 가장 마음에 드는 한 권을 집어 본다.”(‘시 바람 느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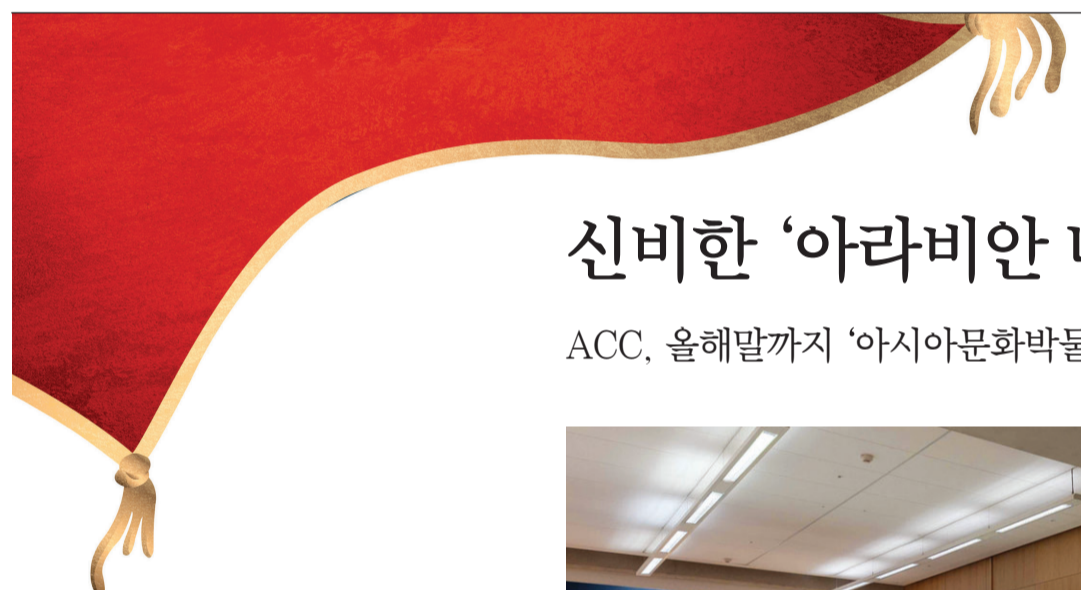
개느껴진다.

해설을 쓴 최류빈 시인은 “공기’라는 소재가 한편으로 쾌청한 이미지가 연상돼 미려한 세계를 탁분하기에 좋은 이미지리인 것 같다”며 “하나 시집 전편에서 공기를 관류하는 시인의 발화는 역설적이게도 ‘차연’하다”고 평한다.

시인은 이제 또 다른 창작의 여정에 돌입했다. 그는 어떤 대상에 대해 온전히 자신의 시언으로 따뜻하게 바라봐주고 표현할 수 있는 시를 꿈꾼다고 덧붙였다.

“내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불안감이 엄습해올 때도 있지만 시를 쓴다는 그 자체로 족합니다. 수년간 애정을 쏟으며 시를 썼다는 사실에 몽클해질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의 시간이 결코 의미가 없지는 않았으니까요. 불안도 외로움도 많이 겪었지만 한편으로 창작을 하며 그것을 다스리고 극복할 수 있는 힘도 길렀으니까요.”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신비한 ‘아라비아안 나이트’ 여행

ACC, 올해말까지 ‘아시아문화박물관 특별전-천일야화의 길’



ACC 아시아문화박물관에서 올해 말까지 열리는 ‘천일야화의 길’ 전시 모습. (ACC 제공)

‘아라비아안 나이트’는 중동지역에서 전해오는 설화 등을 엮은 이야기책이다. 여기에는 동화, 우화, 민담 등 다채로운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원래 명칭은 ‘천일야화’다. 셰헤라자드 여인이 왕의 폭정을 중단시키기 위해 1000일만에 걸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것이 서사의 기본 줄거리이다. 흥미로운 이야기는 당일 끝나지 않고 그 다음날까지 이어지게 되고 결국 왕의 폭정이 멈추게 된다.

‘아라비아안 나이트’를 모티브로 한 전시가 열리는 길을 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 ACC)이 진행하는 ‘아시아문화박물관 특별전시-천일야화의 길’(8일부터 올해 말까지)이 그것. 전시는 주요 판본을 비롯해 가상현실, 문화콘텐츠 등으로 구현돼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안재연 학예연구사는 “이번 전시는 우리에게도 친숙한 ‘천일야화’ 기원부터 전승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있는 기회”라며 “아울러 우리나라의 변역사는 물론 아랍의 사회와 풍속 등을 아시아 문화의 관점에서 조명하는 데도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전시는 모두 8개 주제로 진행된다.

1-2장은 ‘천일야화’의 전승 역사, 주요 판본에 초점을 맞췄다. 인도와 페르시아에서 온 이야기가 지배 세력 부침에 따라 유럽으로 전해졌다 다시 아랍으로 역수입한 과정 등이 소개된다. 우리나라 근대 최초의 한글 번역 소설인 ‘유혹역전(1895)’이 ‘천일야화’를 번역했다는 내용도 볼 수 있다. 방정환이

‘천일야화’와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등 4편을 잡지 ‘어린이’에 소개해 시 ‘열려라 잠개’를 ‘열려라, 콩’, ‘달하라, 팔’으로 번역했던 일화를 만날 수 있다.

‘천일야화’를 모티브로 한 문화 콘텐츠를 소개하는 부분도 있다. 3장은 화자인 셰헤라자드의 변신 모습을 초점화한다. 18세기 페르시아 소녀에서 21세기 열정적인 여성으로 변모해가는 이색적인 모습이 눈길을 끈다. 이어 4장은 이미지, 회화, 우표, 엽서 등 이색적인 자료로 재현된 아랍을 만나는 코너다.

5장에서는 디지털 체험공간. 주인공을 선택해 전통 의상에 색을 칠하고 스캔할 수 있다. 일명 ‘라이브스캐너’는 ‘셰헤라자드’를 비롯해 ‘하늘을 나는 목마’, ‘신바드의 모험’ 이야기의 주인공을 토대로 디지털 체험이 가능하다.

6장에는 아랍어 전집 ‘천일야화’ 등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소개하는 코너가 마련돼 있으며, 유럽

에 처음 ‘천일야화’를 소개한 18세기 프랑수아 앙투안 갈랑의 번역본도 만나. 7장은 텐트, 휴집, 물담배, 커피 등 아랍인들의 다양한 사회풍속과 관련된 자료 등이 비치돼 있다.

끝으로 3D 그래픽으로 구성된 가상현실 공간에서 콘텐츠를 감상하는 공간도 있다. 8장은 ‘라마야나’, ‘마나스’, ‘천일야화’를 감상하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이다. (무인 안내기 VR 전시는 누리집을 통해 인터넷 감상도 가능하다)

개막식은 8일 열리며 주한이라크공화국대사관이 기증한 전통 이라크 남성 의상도 전시된다.

이강현 전당장은 “이번 ‘천일야화의 길’ 전시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천일야화’의 역사와 내용을 다채로운 콘텐츠로 볼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특징”이라며 “ACC는 앞으로도 연구 조사한 결과물을 토대로 관람객들에게 아시아의 문화와 풍속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남도립국악단 정기공연 ‘아버지가 집에 와 계신 날 같은, 국악’. (전남문화재단 제공)

메가 브랜드 공연·지역 특성 담은 창작 지원

전남문화재단, 올 주요사업 발표...지역소멸·청년일자리 등 도움 기대

올해 창립 15주년을 맞은 전남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은영·재단)이 지역소멸 극복, 청년일자리 창출 및 메가 브랜드 공연 제작 등을 골자로 한 신년 계획을 발표했다.

재단은 15일 동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메가 브랜드 공연 준비, 지역 특성 감안한 창작 지원 등 주요 사업의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재단이 준비하고 있는 사업 중 눈길을 끄는 것은 ‘메가 브랜드 공연 준비’. 세계시장에서 주목받는 K-POP과 한국전통문화, 전남 문화자산을 활용해 국가 브랜드로 위연을 확장하겠다는 복안이다. 현재 사업을 구상 중이며 1-2월 중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창작지원도 계속된다. 재단은 올해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창작지원을 위해 25억8000여만 원 예산을 편성했으며 개인 300만 원, 단체 700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

전남도청청년정책과정을 반영해 청년예술가 활동지원 사업의 수혜 대상을 39세에서 45세로 상향 조정할 점도 주목받는다. 선정 인원을 20명으로 확대(지난해 8명) 선정하며, 오는 24일부터 2월 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참여예술가 18명 중 9명이 귀농·귀촌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 ‘사회적 가치지향 청년 프로젝트’는 올해도 전국 예술가들에게 문호

를 개방할 예정이다. 지역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남도예술은행, 작가와 작품을 홍보하는 온라인 미술플랫폼 운영, 예술작품 멤버십 렌트사업 등도 지속하며 지역작가의 수도권 진출 교두보를 위한 ‘서울옥션 제로베이스 in 전남’ 등도 예정대로 진행한다.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복지혜택을 제공하는 문화누리카드 사업도 지난해보다 2만원 증액한 연 13만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생활 속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역 7개 기초문화재단(순천, 목포, 담양 등)과 연계 사업, 마한문화권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위한 연구개발 등도 계속된다.

도립국악단의 공연 브랜드화와 가무악회 레퍼토리 개발 등도 주요 사업이다. 그립국악 상설공연을 총 49회, 도립국악단과 도립어린이국악단 정기공연(11월)을 비롯해 기획공연 ‘푸른 고래 가무악회’(4월)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은영 대표이사는 “재단이 추진 예정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이 지역소멸과 청년 일자리 창출, 로컬브랜드 가치 창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문화 플랫폼으로서의 내실을 다지고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제2회 상상인작품상에 조선의 시인 선정

조선의 시인이 제2회 상상인작품상에 선정됐다. 수상작은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이며 상금은 300만원.

14일 출판사 ‘상상인’에 따르면 조선의 시인이 제2회 상상인작품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상상인작품상은 시 전문지 ‘상상인’에 게재된 작품의 문학성을 높이고 시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제정됐다.

심사를 맡은 마경덕 시인과 전혜수 문학평론가는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은 익숙한 언어를 낯선 언어로 변형시켜 이해 가능한 언어가 되었을 때 언

어는 시적 기능을 발휘한다”고 평했다.

조선의 시인은 지난 2013년 농민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했으며 ‘어쩌면 쓰라린 날은 꽃피는 동안이다’,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반대편으로 창문 열기’ 등의 시집을 펴냈다. 김만중문학상, 송순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조 시인은 “우리는 인간관계를 통해 상처 받지만 그 상처가 인간관계를 통해 회복한다는 것을 믿는다”며 “이번 작품은 박차고 나가야 할 길에서 여기 저기 기웃거리려 나에게 길이 되묻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상은 머나먼 시의 길을 걸어가



조선의 시인

는 여정에서 고맙고 귀한 격려로 다가온다”며 “천천히 그러나 중단하지 않고 창작의 길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2회 상상인작품상은 2022년 제4호(7월), 2023년 제5호(1월), 2023년 제6호(7월)까지 수록된 작품을 심사대상으로 했다. 시상식은 오는 3월 30일 오후 4시 종로 낙원상가 엔피오피아홀 520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문예위 ‘한밤의 낭독자’...싱어송라이터 ‘시와’ 초청

17일 온라인 플랫폼 인문 360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의 온라인 플랫폼 인문 360에서 진행되는 ‘한밤의 낭독자들’ 세번째 시간 명사로 싱어송라이터 ‘시와’가 출연한다. 오는 17일 밤 9시.

‘한밤의 낭독자들’은 명사들이 마음에 와닿는 책을 선정하고, 구문을 선별해 읽어주는 온라인 릴레이 낭독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출연하는 아티스트 ‘시와’는 이화여대 특수교육학과를 졸업했으며 2007년 앨범 ‘시

와’로 데뷔, 2010년 신진여성문화인상 등을 수상하면서 주목받았다. 그동안 ‘봄을 만든다’, ‘꿈속의 새’를 비롯해 ‘파죽: 소라에게’ 등을 선보였다.

문예위 예술확산본부 정우희 담당자는 “딱딱한 분위기의 석학들을 초대하기 보다, 삶의 경험을 ‘책’을 매개로 풀어낼 수 있는 명사들을 속고 해 섬유했다”며 “인구감소와 자살을 증가 등 청년층이 맞닥뜨린 문제를 ‘인문학적 요소’로 풀어내는 강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